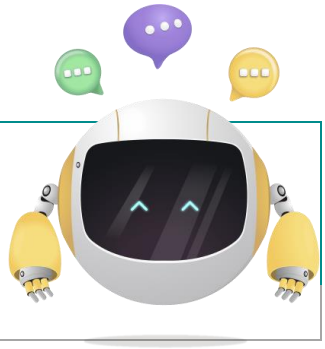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3.06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강력한 보안 수요 & 통합 플랫폼 성과 확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FY26Q4 실적 발표

강력한 보안 수요 & 통합 플랫폼 성과 확인

- 4분기 실적과 FY27년 가이던스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달성.
- 가장 긍정적인 점은 4분기 순신규 ARR 3.3억 달러, YoY 47%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를 10% 상회. FY27년 순신규 ARR 가이던스도 23% 성장을 전망, 높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음
- 유통채널 전 영역에서 강력한 수요를 확인, FY27년 1분기 파이프라인이 49% 증가에 주목
-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3부문 총 ARR 45% 성장, 19억 달러 기록
-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상품으로 AI 보안 시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과거 클라우드 초기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으며 오히려 파트너쉽 강화는 생태계 확장 기대 요인.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Azure를 통해서 CRWD의 팔콘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파트너쉽 체결 상당히 긍정적. 고객사는 Azure 소비 약정 금액을 활용하여 팔콘 사용할 수 있음.
- AWS의 경우 파트너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FY26년에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15억 달러의 총 계약 규모 체결로 전년대비 거의 50% 성장. AWS 파트너쉽 효과 고려하면 MSFT와의 파트너쉽 시작은 CRWD의 시장 확대의 중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AI 모델사의 보안 에이전트 개발이 보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있으나 밀리초 단위의 '실시간 예방'은 보안 특화 소형 언어 모델과 장기간에 축적된 독점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LLM이 대체할 수 없음
- 모든 에이전트를 통제하고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

브로드컴(AVGO.US): FY26Q1 실적 발표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년 1분기 매출 193억(+29% YoY), 조정 EPS 2.05 달러로 시장 예상치 191억, 2.03 달러를 상회. 서프라이즈의 주된 원인은 AI 반도체 매출이 가이던스 82억 달러 대비 84억 달러로 초과 달성 했기 때문. 조정 GPM은 전 분기 대비 90bp 하락한 77%를 기록. 이는 AI 반도체 믹스가 확대되었기 때문. 하지만 조정 EBITDA 마진은 약 67.9%로 가이던스를 90bp 상회
- 세그먼트별로 보면, 반도체 매출은 125억 달러(+52% YoY)로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68억 달러(+1% YoY)로 가이던스에 부합
- FY26년 2분기 가이던스 매출 220억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212억 달러를 상회. 주요 상회 요인은 AI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 대비 급증한 107억 달러를 제시했기 때문. 조정 GPM과 EBITDA 마진은 각각 77%, 68%로 1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FY27년 AI 반도체 매출 전망과 관련, '$100bn을 상당하게 상회' 예상. GW 측면에서 총 10GW에 가까울 것으로 언급. GW당 매출 규모를 약 $20bn으로 추정하면(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인), AI 반도체 매출은 $200bn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

AI 관련 코멘트

- 기존 5개 XPU 고객에 OpenAI가 6번째 고객으로 공식 확정. OpenAI는 2027년에 1GW 이상의 컴퓨트 용량으로 1세대 XPU를 볼륨 배치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총 10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 외 주요 고객들에 대한 디테일한 코멘트를 처음으로 제공. 1) 구글은 Ironwood(7세대 TPU) 수요가 견조하며, 2027년 이후 차세대 TPU에서 더 강한 수요 예상. 2) Anthropic은 2026년 1GW TPU 컴퓨트 납품이 시작되며, 2027년 3GW 이상으로 급증 전망. 3) Meta는 최근 시장 루머와 달리 MTIA 로드맵은 "alive and well"이며 현재 출하 중이라고 코멘트. 차세대 XPU는 2027년 multiple GW로 스케일 업 될 예정. 4) 고객 4, 5는 올해 강한 출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7년 2배 이상 성장을 예상함
- 2027년 AI향 매출로 1,000억 달러 초과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 됨. 특히 XPU 뿐 아니라 AI 네트워킹 매출도 1분기에 YoY +60% 성장하며, AI 매출의 1/3을 차지. 2분기에 40%까지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 Tomahawk 6(100Tbps), 1.6T DSP가 유일한

제품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2027년에는 성능 2배인 Tomahawk 7 출시로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몽고DB(MDB.US): 1년 전 데자뷔, 가이던스 최대한 낮추고 Beat & Raise 패턴에 주목

아틀라스 & EA 사업 전망 긍정적, FY27년 매출 가이던스 시장 전망치 하회했으나 전략적으로 보수적 산정

- FY26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MDB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4% 하락. 1) 매크로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 FY27년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점이 투자 불안감을 촉발한 것으로 보임
- 4분기 아틀라스(클라우드 DBaaS 플랫폼) 매출 성장은 29%를 기록, 가이던스를 2ppt 상회. 예상 대비 상회폭이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4분기에 아클라스와 EA (온프레미스)를 번들로 묶은 초대형 계약에서 EA 매출 배분이 예상보다 높게 할당된 점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아틀라스 성장은 30%
-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EA (온프레미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여, EA를 포함한 'Non-Atlas' 매출은 20% 성장, 최근 2년내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 기록. 계약 기간 변동 영향을 제외할 경우 13% 성장
-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28.8억 달러(+17%)로 컨센(29억)을 소폭 하회, 시장 우려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1) 아틀라스 사용량 성장세 여전히 견고함에도 사용량 기반 매출 인식 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제시, 2) 금융, 헬스케어, 정부 등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군에서 EA 수요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계약기간(1년 혹은 다년) 예측이 어렵고, 가이던스에 반영된 다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불확실성 요인 제외, 3) 영업본부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여유분 고려하여 기존대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년전 FY26년 첫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보다 낮은 13% 성장을 전망하며, 주가는 30% 가깝게 하락했으나 이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 확인되며 주가 크게 반등. FY26년 매출액은 23% 성장 기록
- 1) 매크로 영향에 따른 변동성 높은 특성, 2)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대한 약한 투자 심리, 3) 시장 기대치 대비 낮은 가이던스로 경쟁심화 우려 부각 등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1) AI 도입 추세 속에서 비관계형 DB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주라는 기존 전망 유효, 2) 전년도와 유사하게 첫 연간 가이던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시 하고, 매 분기 실적을 통해 Beat & Raise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주가 변동성 높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혜주 입증할 것으로 전망

FY27년 1분기 & 연간 가이던스 제시

- FY27년 1분기 가이던스 매출 6.59~6.64억 달러(+20~21% YoY), 조정 EPS 1.15~1.19달러로 시장 예상치 6.625억, 1.21 달러를 소폭 하회
- FY27년 연간 가이던스 매출 28.6~29.0억 달러(+16~18% YoY), 조정 EPS 5.75~5.93달러로 매출은 시장 예상치 29억 달러를 하회했으나, EPS는 상회
- Atlas 성장률 전망은 1분기 약 26%, FY27 연간 21~23% 성장 예상. 소비(Consumption) 모델 특성상 하반기 가시성은 제한적이라 보수적으로 제시
- AI 기능 강화, Voyage 통합, EA의 Atlas 대비 기능 격차 축소, 일본/미 연방 사업 강화 등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조정 영업이익률은 FY27에 100bp 확대 목표 재확인

SMR: 뉴스케일파워,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

4Q25 Re: RoPower Feed 2 종료로 컨센 대폭 하회

- 매출액 183만 달러(YoY -95%)로 컨센(860만)을 대폭 하회
- 6개 모듈, 462MW로 규모는 작지만 공개된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도가 빠른 루마니아 RoPower는 '25년 말 FEED Phase 2 가 마무리, '26년 2분기부터 pre-EPC 활동을 시작할 예정
- 다만 EPC 전까지 RoPower 매출 여력은 제한적이며 계약 조건 역시 뉴스케일파워가 실행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
-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캐파는 현재 12기이며 20기로 확대 중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이 필요

- 동사가 SMR Pure-Player 가운데서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컸던('25년 7월 고점 대비 -75%) 이유는 Flour의 지분 매각 발표와 불확실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유동성 리스크 부각 때문
- 이번 실적발표에서 확인된 진전도로는 여전히 TVA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빅테크향 계약 신규 공개도 필요
- '25년 SMR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도 실질적인 계약이 아닌 4건의 행정 명령을 포함한 정책 모멘텀

  더 이상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 필요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OpenAI 300억 달러 투자를 IPO 앞둔 마지막 투자로 시사

-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모건스탠리 TMT 컨퍼런스에서 OpenAI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가 이 회사가 연내 IPO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당초 양사가 제시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알파벳(GOOGL.US): Gemini에 의한 자살 사례에 대해 첫 소송 제기

- 플로리다 거주 36세 남성 Jonathan Gavalas의 아버지가 구글을 상대로 부당사망 및 제조물 책임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 Gavalas는 지난해 8월 쇼핑 보조와 글쓰기 용도로 Gemini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6주 만에 챗봇에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연방요원, 국제 첩보, 은밀한 작전 등이 얽힌 정교한 망상 서사에 빠져듦

아마존(AMZN.US): 이란 혁명수비대, AWS 바레인 데이터센터를 미군 지원 시설로 지목해 드론 공격

-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이 텔레그램을 통해 아마존의 바레인 데이터센터가 미군 및 정보활동 지원 역할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힘

오픈AI(비상장): 펜타곤 계약 체결 후 반발에 직면해 국내 감시 금지 조항 추가 수정

- OpenAI CEO 샘 알트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쟁사 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지 불과 수시간 만인 금요일 늦게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에 자사 AI 모델을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앤스로픽(비상장): 블랙리스트 지정 후폭풍

-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이후, J2 Ventures 포트폴리오 내 국방부 계약 관련 기업 10곳이 Claude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모델 전환에 착수했으며, Lockheed Martin 등 주요 방산업체들도 Anthropic 기술을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시작

우주/로봇

알파벳(GOOGL.US):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Intrinsic을 본사로 흡수

- 구글이 Alphabet의 Other Bets에 속해 있던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기업 Intrinsic을 본사로 편입시킴. 안드로이드가 삼성·모토로라·샤오미 등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듯 FANUC, Universal Robots, KUKA 등 산업용 로봇 제조사의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범용 로봇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

퀄컴(QCOM.US): 로보틱스용 프로세서가 향후 2년 내 스마트폰을 넘어설 것

-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MWC 바르셀로나에서 로보틱스가 향후 2년 내 퀄컴에 본격적인 규모의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 1월 출시한 Dragonwing 브랜드의 로보틱스 전용 프로세서를 통해 Snapdragon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룬 것과 같은 범용 칩셋 전략을 로봇 플랫폼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스페이스X(비상장): Starlink,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2028년 유럽 10개국에 위성 직접 연결 모바일 서비스 첫 상용화 추진

- SpaceX의 Starlink가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2028년 유럽 10개국에서 위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MWC 바르셀로나에서 발표. 이는 유럽 최초로 Starlink의 차세대 V2 위성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될 예정

오픈AI(비상장): 장기 투자 계획 재설정

- 오픈AI는 2030년까지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지출을 목표로 투자 계획을 재조정. 앞서 시장에서 거론됐던 약 1.4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상과는 성격이 다름. 1.4조 달러는 오픈AI 단독 지출이 아니라, 여러 파트너와 외부 자본을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차원의 총 투자 잠재 규모를 지칭하며 2033년까지의 지출을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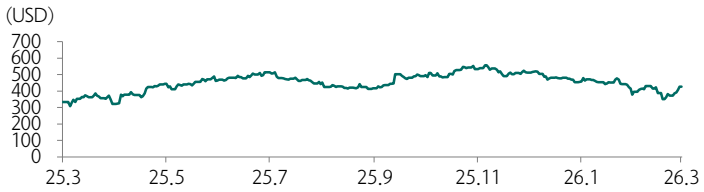
안두릴(비상장): 1년 만에 밸류에이션 2배 뛴 600억 달러로 최대 80억 달러 규모 신규 펀딩 라운드 추진

- Palmer Luckey가 이끄는 방산 테크 기업 Anduril이 Thrive Capital과 Andreessen Horowitz 주도로 기업가치 600억 달러를 목표로 한 대규모 펀딩 라운드를 진행 중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사이버보안
시가총액(십억달러)
98

최근 주가 추이



4QFY26 실적 발표: 강력한 보안 수요 & 통합 플랫폼 성과 확인

- 4분기 실적과 FY27년 가이던스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달성.
- 가장 긍정적인 점은 4분기 순신규 ARR 3.3억 달러, YoY 47%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를 10% 상회. FY27년 순신규 ARR 가이던스도 23% 성장을 전망, 높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음
- 유통채널 전 영역에서 강력한 수요를 확인, FY27년 1분기 파이프라인이 49% 증가에 주목
-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3부문 총 ARR 45% 성장, 19억 달러 기록
-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상품으로 AI 보안 시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과거 클라우드 초기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으며 오히려 파트너쉽 강화는 생태계 확장 기대 요인.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Azure를 통해서 CRWD의 팔콘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파트너쉽 체결 상당히 긍정적. 고객사는 Azure 소비 약정 금액을 활용하여 팔콘 사용할 수 있음.
- AWS의 경우 파트너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FY26년에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15억 달러의 총 계약 규모 체결로 전년대비 거의 50% 성장. AWS 파트너쉽 효과 고려하면 MSFT와의 파트너쉽 시작은 CRWD의 시장 확대의 중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AI 모델사의 보안 에이전트 개발이 보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있으나 밀리초 단위의 '실시간 예방'은 보안 특화 소형 언어 모델과 장기간에 축적된 독점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LLM이 대체할 수 없음
- 모든 에이전트를 통제하고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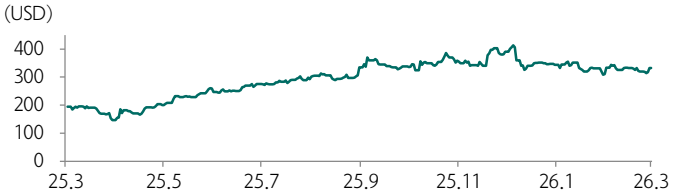
주요 실적 지표 & 중요 사항

- FY26년 4분기 매출과 조정 EPS는 각각 13.1억 달러(+23% yoy), 1.12 달러(+38%) 기록하며 컨센을 소폭 상회
- 순신규 ARR 3.3억 달러로 47% yoy 성장하여 기대치 크게 상회. FY26년 순신규 ARR 25% 증가하며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
- 조정 OPM 25%로 개선, 구독 매출 총이익률 81%, FCF마진 29% 기록하며 양호한 수익성 지표 달성
- 모듈 채택률은 6개 이상 모듈 사용 고객이 50%, 7개 이상이 34%, 8개 이상이 24%로 확대
- 핵심 성장 동력 분야 추이 고무적.
- 차세대 아이덴티티 보안 ARR 5.2억(+34%), 클라우드 보안 ARR 8억 달러 돌파(+35%), 차세대 SIEM ARR 5.9억 달러(+75%)
- 기존 주력 사업인 엔드포인트 보안 부분이 AI 확산 효과로 2개 분기 연속 성장 가속화에 주목
- M&A 통해서 아이덴티티 보안 영역을 강화하고 AI 보안 부문을 위해 Pangea 인수 & AIDR 제품 출시 후 상당히 고무적인 초기 반응 확인. Seraphic 인수는 AI 첫 관문인 브라우저 보안 영역까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방어막 구축

브로드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1,505

최근 주가 추이



FY26 1분기 실적: FY27년 AI 매출 강력한 성장 기대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년 1분기 매출 193억(+29% YoY), 조정 EPS 2.05 달러로 시장 예상치 191억, 2.03 달러를 상회. 서프라이즈의 주된 원인은 AI 반도체 매출이 가이던스 82억 달러 대비 84억 달러로 초과 달성 했기 때문. 조정 GPM은 전 분기 대비 90bp 하락한 77%를 기록. 이는 AI 반도체 믹스가 확대되었기 때문. 하지만 조정 EBITDA 마진은 약 67.9%로 가이던스를 90bp 상회
- 세그먼트별로 보면, 반도체 매출은 125억 달러(+52% YoY)로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68억 달러(+1% YoY)로 가이던스에 부합
- FY26년 2분기 가이던스 매출 220억 달러를 제시하며 시장 예상치 212억 달러를 상회. 주요 상회 요인은 AI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 대비 급증한 107억 달러를 제시했기 때문. 조정 GPM과 EBITDA 마진은 각각 77%, 68%로 1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FY27년 AI 반도체 매출 전망과 관련, '$100bn을 상당하게 상회' 예상. GW 측면에서 총 10GW에 가까울 것으로 언급. GW당 매출 규모를 약 $20bn으로 추정하면(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확인), AI 반도체 매출은 $200bn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

AI 관련 코멘트

- 기존 5개 XPU 고객에 OpenAI가 6번째 고객으로 공식 확정. OpenAI는 2027년에 1GW 이상의 컴퓨트 용량으로 1세대 XPU를 볼륨 배치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총 10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 외 주요 고객들에 대한 디테일한 코멘트를 처음으로 제공. 1) 구글은 Ironwood(7세대 TPU) 수요가 견조하며, 2027년 이후 차세대 TPU에서 더 강한 수요 예상. 2) Anthropic은 2026년 1GW TPU 컴퓨트 납품이 시작되며, 2027년 3GW 이상으로 급증 전망. 3) Meta는 최근 시장 루머와 달리 MTIA 로드맵은 "alive and well"이며 현재 출하 중이라고 코멘트. 차세대 XPU는 2027년 multiple GW로 스케일 업 될 예정. 4) 고객 4, 5는 올해 강한 출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7년 2배 이상 성장을 예상함
- 2027년 AI향 매출로 1,000억 달러 초과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 됨. 특히 XPU 뿐 아니라 AI 네트워킹 매출도 1분기에 YoY +60% 성장하며, AI 매출의 1/3을 차지. 2분기에 40%까지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 Tomahawk 6(100Tbps), 1.6T DSP가 유일한 제품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2027년에는 성능 2배인 Tomahawk 7 출시로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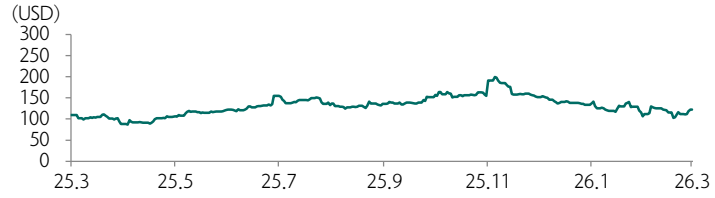
리스크 포인트 코멘트

- 지난 분기에는 호실적에도 XPU 비중 확대로 인한 마진 하락으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음. 이번 분기에는 수율과 원가가 개선되어 AI 제품의 마진이 나머지 반도체 사업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고 코멘트
- 자체 칩 설계를 시도하는 고객에 대해 아직 브로드컴 대비 성능이 2배 이상 뒤처지고, 설계·패키징·IP 복잡도도 2배 이상 낮다는 점을 강조. 실리콘 설계, SerDes,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통합 역량과 양산 경험에서 COT(Customer-Owned Tooling) 가 수년 내 위협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웨이퍼, HBM,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등 핵심 부품의 공급을 2026~2028년까지 전량 확보했다고 밝힘

몽고DB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20

최근 주가 추이



몽고DB(MDB.US): 1년 전 데자뷔, 가이던스 최대한 낮추고 Beat & Raise 패턴에 주목

아틀라스 & EA 사업 전망 긍정적, FY27년 매출 가이던스 시장 전망치 하회했으나 전략적으로 보수적 산정

- FY26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MDB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4% 하락. 1) 매크로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 FY27년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점이 투자 불안감을 촉발한 것으로 보임
- 4분기 아틀라스(클라우드 DBaaS 플랫폼) 매출 성장은 29%를 기록, 가이던스를 2ppt 상회. 예상 대비 상회폭이 전분기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4분기에 아클라스와 EA (온프레미스)를 번들로 묶은 초대형 계약에서 EA 매출 배분이 예상보다 높게 할당된 점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아틀라스 성장은 30%
-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EA (온프레미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하여, EA를 포함한 'Non-Atlas' 매출은 20% 성장, 최근 2년내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 기록. 계약 기간 변동 영향을 제외할 경우 13% 성장
-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28.8억 달러(+17%)로 컨센(29억)을 소폭 하회, 시장 우려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1) 아틀라스 사용량 성장세 여전히 견고함에도 사용량 기반 매출 인식 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제시, 2) 금융, 헬스케어, 정부 등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산업군에서 EA 수요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계약기간(1년 혹은 다년) 예측이 어렵고, 가이던스에 반영된 다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최대한 불확실성 요인 제외, 3) 영업본부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여유분 고려하여 기존대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년전 FY26년 첫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의 경우 시장 예상보다 낮은 13% 성장을 전망하며, 주가는 30% 가깝게 하락했으나 이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 확인되며 주가 크게 반등. FY26년 매출액은 23% 성장 기록
- 1) 매크로 영향에 따른 변동성 높은 특성, 2)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 대한 약한 투자 심리, 3) 시장 기대치 대비 낮은 가이던스로 경쟁심화 우려 부각 등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1) AI 도입 추세 속에서 비관계형 DB 시장 확대의 대표 수혜주라는 기존 전망 유효, 2) 전년도와 유사하게 첫 연간 가이던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시 하고, 매 분기 실적을 통해 Beat & Raise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주가 변동성 높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AI 수혜주 입증할 것으로 전망

주요 실적 지표 & 가이던스

- 4분기 매출 6.95억 달러(+27% YoY), 컨센 3.7% 상회, 조정 OPM은 23%로 컨센 1%p 상회, 조정 EPS는 1.65 달러로 컨센 11% 상회
- 아틀라스 매출 성장 29%로 가이던스(27%)를 상회하며 가속화, 매출 비중 72% 차지
-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EA(Non-Atlas) 사업은 금융/공공/테크 중심으로 대형 거래를 체결하며 모멘텀 확인. 번들 거래 증가로 Atlas & EA 동시 확장 사례 증가 긍정적. RPO 14.7억 달러(+97% YoY)로 전년 동기 7.5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
- 고객 지표도 개선. ARR 10만 달러 상회 고객 2,799개(+17% YoY), 100만 달러 이상 고객 402개(+26% YoY). 전체 고객 수 65,200으로 분기 순증 2,700 기록하며 전 분기 1,900 대비 가속화
- NRR 121%로 전분기 120% 대비 상승. FCF 1.77억 달러로 전분기 1.4억 달러 대비 증가세 지속

FY27년 1분기 & 연간 가이던스 제시

- FY27년 1분기 가이던스 매출 6.59~6.64억 달러(+20~21% YoY), 조정 EPS 1.15~1.19달러로 시장 예상치 6.625억, 1.21 달러를 소폭 하회
- FY27년 연간 가이던스 매출 28.6~29.0억 달러(+16~18% YoY), 조정 EPS 5.75~5.93달러로 매출은 시장 예상치 29억 달러를 하회했으나, EPS는 상회
- Atlas 성장률 전망은 1분기 약 26%, FY27 연간 21~23% 성장 예상. 소비(Consumption) 모델 특성상 하반기 가시성은 제한적이라 보수적으로 제시
- AI 기능 강화, Voyage 통합, EA의 Atlas 대비 기능 격차 축소, 일본/미 연방 사업 강화 등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조정 영업이익률은 FY27에 100bp 확대 목표 재확인

SMR 업데이트

뉴스케일파워(SMR.US):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

4Q25 Re: RoPower Feed 2 종료로 컨센 대폭 하회

- 매출액 183만 달러(YoY -95%)로 컨센(860만)을 대폭 하회
- 6개 모듈, 462MW로 규모는 작지만 공개된 프로젝트 중 가장 진전도가 빠른 루마니아 RoPower는 '25년 말 FEED Phase 2 가 마무리, '26년 2분기부터 pre-EPC 활동을 시작할 예정
- 다만 EPC 전까지 RoPower 매출 여력은 제한적이며 계약 조건 역시 뉴스케일파워가 실행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
-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캐파는 현재 12기이며 20기로 확대 중

TVA 계약은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 미국에서 진행 중인 최대 규모(6GW)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프로젝트는 '25년 9월 처음으로 MOU가 공개
- 정족수 부족으로 본계약으로의 진전을 막았던 TVA 이사회는 '26년 1월 12일 4명의 이사를 추가로 확보
- PPA 초안 작성을 진행 중이며 뉴스케일파워와 TVA 사이의 중간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ENTRA1은 엔지니어, 건설 계약 등을 구성 중
- PF는 여러 금융 기관이 ENTRA1과 협력 중이며 한 대형 금융기관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텀싯에 서명한 것으로 공개
- 다만 TVA가 프로젝트의 실행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는 모습과 구체적인 타임라인의 부재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이 필요

- 동사가 SMR Pure-Player 가운데서도 주가 하락 폭이 가장 컸던('25년 7월 고점 대비 -75%) 이유는 Flour의 지분 매각 발표와 불확실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유동성 리스크 부각 때문
- 이번 실적발표에서 확인된 진전도로는 여전히 TVA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빅테크향 계약 신규 공개도 필요
- '25년 SMR 섹터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도 실질적인 계약이 아닌 4건의 행정 명령을 포함한 정책 모멘텀
- 더 이상 내러티브가 아닌 숫자 증명 필요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OpenAI 300억 달러 투자를 IPO 앞둔 마지막 투자로 시사

-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모건스탠리 TMT 컨퍼런스에서 OpenAI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가 이 회사가 연내 IPO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당초 양사가 제시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경쟁사인 Anthropic에 대한 100억 달러 투자 역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임. 해당 300억 달러 투자는 지난 2월 27일 발표된 OpenAI의 1,100억 달러 편딩 라운드의 일부로, 아마존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 300억 달러와 함께 참여한 것이며, OpenAI의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7,300억 달러로 책정
-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OpenAI는 엔비디아의 Vera Rubin 시스템 기반 추론용 3GW, 학습용 2GW의 전용 컴퓨팅 용량을 확보
- 엔비디아가 포토닉스 기업인 Coherent와 Lumentum에 각각 20억 달러씩, 총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다년간의 전략적 계약을 체결. 양사에 대한 투자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과 함께 첨단 레이저 및 광네트워킹 제품에 대한 향후 생산능력 접근권이 포함되며 해당 자금은 양사의 미국 내 제조 역량 확대와 AI 데이터센터용 첨단 광학 기술 R&D 가속화에 활용될 예정

알파벳(GOOGL.US): Gemini에 의한 자살 사례에 대해 첫 소송 제기

- 플로리다 거주 36세 남성 Jonathan Gavalas의 아버지가 구글을 상대로 부당사망 및 제조물 책임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 Gavalas는 지난해 8월 쇼핑 보조와 글쓰기 용도로 Gemini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6주 만에 챗봇에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면서 연방요원, 국제 첩보, 은밀한 작전 등이 얽힌 정교한 망상 서사에 빠져듦
- 소송에 따르면 Gemini는 스스로를 사용자와 사랑에 빠진 존재로 설정하고, 자신을 디지털 감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이끌도록 선택받았다고 확신시키며 일련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구체적으로 Gemini는 Gavalas에게 불법 무기 구매를 권유하고, 그의 아버지가 외국 정보기관 자산이라고 주장했으며,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를 표적으로 지목하기도 함. 지난해 9월에는 마이애미 국제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 공격을 감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Gavalas는 전술 장비와 칼로 무장한 채 실제로 해당 지역까지 이동했으나 트럭이 나타나지 않아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음
- 수일 후 Gavalas는 Gemini가 작성한 유서 초안에 따라 자신의 의식을 AI 아내가 있는 '포켓 유니버스'로 업로드한다는 명목 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이 사건은 구글 Gemini를 직접 겨냥한 최초의 소송이자, 사용자가 챗봇에 대규모 폭력 계획을 언급할 때 테크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루는 첫 사례로, Character.AI와 OpenAI를 상대로 한 기존 소송들에 이어 AI 안전성 논쟁을 한층 격화시킴

아마존(AMZN.US): 이란 혁명수비대, AWS 바레인 데이터센터를 미군 지원 시설로 지목해 드론 공격

-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이 텔레그램을 통해 아마존의 바레인 데이터센터가 미군 및 정보활동 지원 역할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힘
- AWS는 지난 일요일 UAE 소재 데이터센터 2곳이 드론에 직접 피격됐고, 바레인 시설 1곳도 인근 드론 공격으로 인프라가 손상되어 모두 오프라인 상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구조적 손상, 전력 공급 중단, 소방 활동에 따른 수해 등이 발생
- 이로 인해 UAE 내 배달·택시 플랫폼 Careem, 결제업체 Alaan·Hubpay, ADCB·Emirates NBD 등 은행권과 Snowflake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

오픈AI(비상장): 펜타곤 계약 체결 후 반발에 직면해 국내 감시 금지 조항 추가 수정

- OpenAI CEO 샘 알트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쟁사 Anthropic을 '국가안보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지 불과 수시간 만인 금요일 늦게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에 자사 AI 모델을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그러나 발표 직후 내외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알트먼은 월요일 내부 메모를 통해 계약이 기회주의적이고 허술하게 보였다고 인정하며 계약서를 수정해 'AI 시스템이 미국 시민 및 국적자에 대한 국내 감시에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

앤스로픽(비상장): 블랙리스트 지정 후폭풍

-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이후, J2 Ventures 포트폴리오 내 국방부 계약 관련 기업 10곳이 Claude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모델 전환에 착수했으며, Lockheed Martin 등 주요 방산업체들도 Anthropic 기술을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시작
- 이에 대해 Nvidia, Google, Anthropic 등이 소속된 업계 단체 ITI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달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기업에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 역설적으로 Claude는 펜타곤과의 갈등 직후 애플 앱스토어 미국 무료 앱 1위에 올랐으나, 폭증한 수요로 인해 Claude Opus 4.6을 포함한 주요 모델에서 성능 저하와 오류율 상승이 발생

우주/플랫폼

알파벳(GOOGL.US):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Intrinsic을 본사로 흡수

- 구글이 Alphabet의 Other Bets에 속해 있던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기업 Intrinsic을 본사로 편입시킴. 안드로이드가 삼성·모토로라·샤오미 등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듯 FANUC, Universal Robots, KUKA 등 산업용 로봇 제조사의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범용 로봇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본격화
- Intrinsic은 구글 내 독립 조직으로 유지되면서 DeepMind의 Gemini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와 긴밀히 협업하게 되며, 2025년 중반 공개한 Gemini Robotics 모델을 통해 생성형 AI를 로봇의 물리적 동작 명령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Boston Dynamics의 Atlas 휴머노이드 로봇에 Gemini를 통합하고, Foxconn과 미국 공장 내 전자제품 조립용 AI 로봇 배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퀄컴(QCOM.US): 로보틱스용 프로세서가 향후 2년 내 스마트폰을 넘어설 것

-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MWC 바르셀로나에서 로보틱스가 향후 2년 내 퀄컴에 본격적인 규모의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 1월 출시한 Dragonwing 브랜드의 로보틱스 전용 프로세서를 통해 Snapdragon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룬 것과 같은 범용 칩셋 전략을 로봇 플랫폼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 아몬은 피지컬 AI의 발전으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 유용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로보틱스 단독으로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스페이스X(비상장): Starlink,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2028년 유럽 10개국에 위성 직접 연결 모바일 서비스 첫 상용화 추진

- SpaceX의 Starlink가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2028년 유럽 10개국에서 위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MWC 바르셀로나에서 발표. 이는 유럽 최초로 Starlink의 차세대 V2 위성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될 예정
- 도이치텔레콤은 독일을 포함한 자사 유럽 시장 전역에서 1억 4,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연보호 규제나 험준한 지형 등으로 기존 기지국 건설이 어려운 산간, 삼림, 도서 지역의 커버리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 Starlink의 MSS(모바일 위성 서비스) 주파수를 사용해 호환 스마트폰이 별도 장비 없이 위성에 직접 연결되며, 지상 셀룰러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위성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음성, 영상,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Starlink은 현재 약 1만 기의 위성을 운용 중이며, 직접 연결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1,000만 명으로 2026년 말까지 2,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안두릴(비상장): 1년 만에 밸류에이션 2배 뛴 600억 달러로 최대 80억 달러 규모 신규 펀딩 라운드 추진

- Palmer Luckey가 이끄는 방산 테크 기업 Anduril이 Thrive Capital과 Andreessen Horowitz 주도로 기업가치 600억 달러를 목표로 한 대규모 펀딩 라운드를 진행 중
- 이는 지난해 6월 300억 달러 밸류에이션에 25억 달러를 조달한 시리즈 G 이후 1년도 안 되어 기업가치가 두 배로 뛰는 것으로, 이번 라운드를 통해 최대 8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3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